■ 르포 광주·전남 자원봉사자 200여 명 태안 방제 현장

퍼내고 닦고…기름띠 맞선 인간띠

추위·악취·기름과의 사투 '구슬땀'

"12년 전의 도움 갚을 수 있어 보람"

김현미(여·27·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는 기름 범벅인 조약돌을 하염없이 닦고 또 닦았다. 3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 있는 바람에, 다리는 마비되고 손도 얼얼했다. 심한 기름 냄새로 현기증까지 더해졌다. 하지만 검게 변한 해변 한 켠에는 형형색색의 조약돌들이 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5일 오후 사상 최악의 원유 유출 사고로 신음하고 있는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해변. 김씨 등 광주·전남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영하 2도의 추위와 살을 에는 듯한 해풍을 이겨내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기름 유출사고 지점(만리포 서북쪽 8km 해상)으로부터 고작 9.6km 떨어진 이곳은 사고 발생 20시간이 지나자 기름띠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이후 해안가 어디에서도 갯장구·따개비 등 바다 생물체 한 마리 눈에 띄지 않았다. 썰물로 드러난 마을 앞 굴 양식장도 검은 기름을 뒤집어쓴 지 오래다.

양식과 관광객을 상대로 한 민박·식당 운영이 생업인 이곳 주민 550여명은 밀려오는 기름띠에 '속수무책'이었다. 대부분 자원봉사자가 만리포 등 유명한 지역으로 몰리기 때문이다. 주민 김성규(52)씨는 "기름 오염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탄식했다.

그러나 이날은 이곳 주민들의 아픔과 좌절을 달래주는 '작은 힘'이 있어 오랜만에 마을이 활기를 되찾았다. 지난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 때 아픔을 겪었던 여수를 비롯한 광주·전남지역 환경운동 단체와 주민 등 200여명이 이날 자원봉사를 펼치며 '태안의 눈물'을 닦아준 것이다.

수능이 끝나 시간적 여유가 생긴 김미희(18·살레시오여고 3년)양도 바위틈에 낀 기름때를 벗겨 내기 위해 진땀을 흘렸다. 흡착포가 부족하다는 말에 집에서 가져온 수건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기름을 닦았다.

이들은 밀물이 들어와 작업을 할 수 없는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기름을 닦아냈다. 이날만 태안지역 곳곳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는 3만여명. 연인원 16만300여명이 기름 찌꺼기를 치웠다. 서해안을 덮친 '기름띠'를 걷어내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해안을 따라 거대한 '인간띠'를 두른 것이다.

하지만, 1만3천kℓ의 기름이 유출된 이번 사고의 피해지역이 3천71만㎡에 달해 일손이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다.

여수환경운동연합 문갑태 사무국장은 "12년 전 씨프린스호 사건 때 받은 도움을 갚고,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 봉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의 : 태안군 재난종합상황실 041-670-2640,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상 최악의 기름 유출사고가 발생한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해안에서 지난 15일 광주·전남지역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기름을 걷어내고 있다. /태안=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허술한 유치장 관리

광주 노래방 방화 피의자 자살

노래방에 불을 질러 내연녀 등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방화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져 경찰의 유치장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14일 밤 9시20분께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 내 화장실에서 방화 피의자 이모(52·무직·광주시 서구 금호동)씨가 자신의 머리에 감고 있던 압박붕대를 이용, 좌변기 물 내림 스위치(높이 60㎝)에 목을 매 쓰러져 있던 것을 근무자가 발견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15일 오전 11시47분께 숨졌다.

이씨는 방화 과정에서 입은 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뒤 14일 오전 9시께 유치장에 입감됐으며, 상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해 압박붕대를 풀지 않고 유치장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박붕대가 유치장 휴대금지 품목이지만, 상처의 통증을 호소하는 피의자 인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입시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방화로 2명이 숨진 사실을 뒤늦게 안 이씨가 충격에 빠져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서장의 특별 근무지시까지 있었지만 당시 근무자들은 이씨가 화장실에 들어 간 지 40여분 동안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 경찰 관계자는 "유치장 화장실의 경우 수감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감시카메라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1m50㎝ 가량의 차단막까지 설치되는 등 화장실 안을 엿볼 수 없는 점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3일 밤 9시15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U노래방에 불을 질러 주인 송모(여·44)씨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불잡혀 조사를 받았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몰카 동원 첨단 사기 도박단

추곡수매 농민 노리다 '덜미'

광산경찰 5명 영장

광주 광산경찰은 16일 추곡수매로 목돈이 생긴 농민들을 상대로 첨단장비를 사용해 사기도박을 벌인 김모(44)씨 등 7명을 사기도박 혐의로 붙잡아 이중 김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 15일 밤 9시께 광주시 광산구 지정동 김모(61)씨의 집에서 마을 주민 이모(62)씨 등 3명과 함께 판돈 1천500만원을 놓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면서 몰래카메라·컴퓨터·소형진동기 등을 이용해 사기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임씨 등은 화투에 형광물질로 바코드 표시를 하고, 옆방에 설치된 컴퓨터로 상대방 패를 읽은 뒤 소형진동기를 발바닥에 부착한 조직원에게 신호를 보내 상대방 패를 알려주는 수법으로 사기도박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만두 먹다 이빨 부러져

순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유명회사 만두에 돌이 들어 있어 이를 먹던 고등학생의 이빨이 부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지난 9일 장모(18·순천 A고 3년)군은 H사의 만두를 먹다 만두속에 있던 0.5㎜ 크기의 돌에 이빨이 부러져 치과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만두는 대기업인 H사가 만든 것으로 어머니 박모(45)씨가 지난 8일 순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구입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불륜 의심' 후배 택시기사 찔러

쌍나팔

○…광주 북부경찰은 16일 후배 택시기사가 자신의 부인과 불륜 관계에 있다고 의심, 술에 취해 흉기로 찌른 조모(53)씨에 대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I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전에 같은 택시회사에 일했던 후배 유모(44)씨의 배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는 것.

○…조씨는 3개월 전 동료 기사들과 함께 부부동반 모임에 갔다가 자신의 아내(50)가 유씨와 손을 잡고 친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불륜 관계를 의심했는데, 경찰에서 "술김에 화가나 유씨를 불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

○…조씨는 범행 후 2시간 동안 자살 소동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낙태 비용 마련위해…

10대 가출 소녀 11차례 빈집털이

10대 가출 소녀가 임신중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일대를 돌면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광주 광산경찰에 절도 혐의로 붙잡힌 전모(18·전북 고창군)양은 임신 6개월의 임산부.

지난 4월 소년원에서 출소한 전양은 곧바로 가출,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친구 A군(18)과 함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했다. 이 과정에서 전양은 임신을 했고, 경제적 능력이 없던 전양은 낙태를 하기로 결심한 뒤 수술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밤 이슬'을 맞기 시작했다.

범행 대상은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아파트 1층 또는 2층 가운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고 사람이 없는 곳만 골랐다. 범행 도중에도 전양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다급함은 더해갔다. 그래서 전 양은 11월부터 집중적으로 범행 횟수를 늘렸고, 11차례에 걸쳐 모두 350만원의 금품을 훔쳤다. 훔친 금목걸이 등을 자신의 친언니(19)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금은방·전당포에 팔아오다 경찰에 결국 꼬리가 잡혔다.

전양은 경찰에 붙잡힌 뒤 건강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 6개월 동안 자신의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의 모습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전양은 경찰에서 "아이도 낳고, 벌을 받고 나면 남자친구와 결혼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울먹였다. 경찰은 이날 전양을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